

교사 20% 수사 대상...광주 성희롱 여고 '비상'

고3 담임교사들도 일부 연루...대입 진학지도·학사운영 차질 교육청 감사 더 늘어날 수도...교육계 다른 여고 변질까 긴장

교사에 의한 성추행·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광주 모 사립여고 후폭풍이 거세다. 전체 교원의 20%에 달하는 11명의 교사가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계가 예고되면서 2학기 학사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고3 담임교사 일부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대입 진학지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사립여고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다른 여고로도 변질 가능성이 있어 광주 교육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은 1일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성추행·성희롱 의혹이 있는 모 여고

의 재학생 대상 전수 조사 자료를 전달받아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여성청소년수사팀 전체 47명, 13명을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시교육청 협조요청을 받고, 여경들을 해당 여고에 파견해 학생 전수조사를 도왔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교육청 조사 자료 등을 수사에 참고할 방침이다.

학생 전수조사에서 교사들로부터 성희

롱이나 성추행, 과도한 언어폭력 피해를 봤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학생 860여명 중 180여 명으로 나타났다. 다른 학생의 피해 정황을 목격했거나 들었다고 답한 사례까지 더하면 피해 학생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학교 교사는 57명으로 남자 39명, 여자 18명이다. 이 중 교사 11명이 학교 자체 조사와 교육청 조사를 거쳐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전체 교사의 20%가 수사 대상으로, 여기엔 고3 담임 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일단 이들 교사를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오는 9일 재단 이사회를 열어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가해자로 지목된 교

사에 대한 교육청 감사도 시작될 예정이어서 징계 대상 교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는 2학기 학사 관리 및 대입 진학지도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교육청은 교육과정 및 대입 진학지도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립학교 교사 일부를 파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 교사 및 강사 채용도 추진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수사와 감사를 통해 가해 교사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징계도 이뤄질 것"이라며 "학사 운영에 차질 없도록 공립 학교 교사 파견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폭염이 꺾목·석탄도 태운다

여수·목포서 자연발화 추정 불 잇따라

계속된 폭염으로 전남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1일 밤 10시 37분께 여수시 화양면 한 폐축사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축사와 바로 옆 주택 일부가 탔다.

소방당국은 축사에 쌓아둔 꺾목이 폭염에 발화하면서 저질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2시 24분께에는 목포시 산정동 한 석탄 야적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야적장에 쌓아둔 석탄 더미에 열이 축적되면서 자연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30일 새벽 2시 45분께에도 영

암군 삼호읍의 한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5시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폭염으로 폐기물 사이에 뜨거운 열기가 누적돼 자연발화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9일에도 여수의 한 펜션 1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가열되면서 불이 나 투숙객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자연발화는 주변 온도와 습도가 높고 열 축적이 쉬운 상황에서 윤활유, 기름, 퇴비,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며 "저장소 온도를 낮추고 통풍이 잘되게 습도를 낮은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명찰 착용 핑계로 가슴 찌르고..."

여고생 26명 성추행 광주 모 고교 전 교장 구속기소

광주시검, 교사 4명도 입건

광주시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교장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 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명찰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며 가슴을 찌르는 등 42차례에 걸쳐 여학생 26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초 성추행 민원을 접수, 해당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무기명 설문지를 배포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 학교 교사 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모기 박멸 연막소독 1일 오전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름철 모기 등 해충박멸을 위한 연막소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 해경교육원서 일과 후 수영 경찰간부후보생 숨져

지난 31일 오후 8시 30분께 여수시 오천동 해경교육원 수영장에서 경찰간부후보생 A(여·26)씨가 물에 빠져 있는 것을 직원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A씨는 해경교육원 직원이 실내 수영장 문을 닫기 위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3m 깊이의 수영장 바닥에 엎드린 채 발견됐다.

해경교육원 관계자에 의해 구조돼 심

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일과를 마친 뒤 동료들과 자유 시간에 3m 깊이의 수영장에서 연습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2주 과정으로 해경교육원에 입교한 A씨는 해경과 합동 교육을 받아왔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대법,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인정

1+1이라며 2개값 매겨

소비자 속인 광고 해당

대법원은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매했던 물건을 하나 더 덩으로 준다고 광고한 뒤 사실상 물건 2개 값을 받고 팔았다면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 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

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1월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 등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마트가 "공정위가 1+1 판매를 할인판매로 위법하게 확장해석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소송을 냈다. 이마트는 당시 개당 4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을 95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법원은 이마트에서 삼푸를 1+1 방식으로 판매한 부분을 두고는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마트는 개당 6천500원에 판매하던 삼푸를 2배에 못 미치는 9800원으로 인상해 1+1판매를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롯데마트의 1+1 판매 광고에 대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롯데마트는 개당 2600원에 판매하던 참장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취업대가 19억 쟁건 기아차 전 노조간부 구속기소

광주시검 형사3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취업대가로 1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아차노조 광주지회 전 부회장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기아자동차 취업을 조건으로 28명에게 18억 89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아차 인사담당자나 고위간 부에게 부탁해 정규직 사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실제로 취업된 사례는 찾지 못했다.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수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 오던 중 지난달 초 검거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성 팬티 훔쳐 착용하다 들킨 30대 "본능에 이끌려 훔쳐"



○...아파트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여성용 팬티를 훔친 뒤 여자화장실에서 착용하다 이웃 주민에게 들켜 달아났던 30대가 경찰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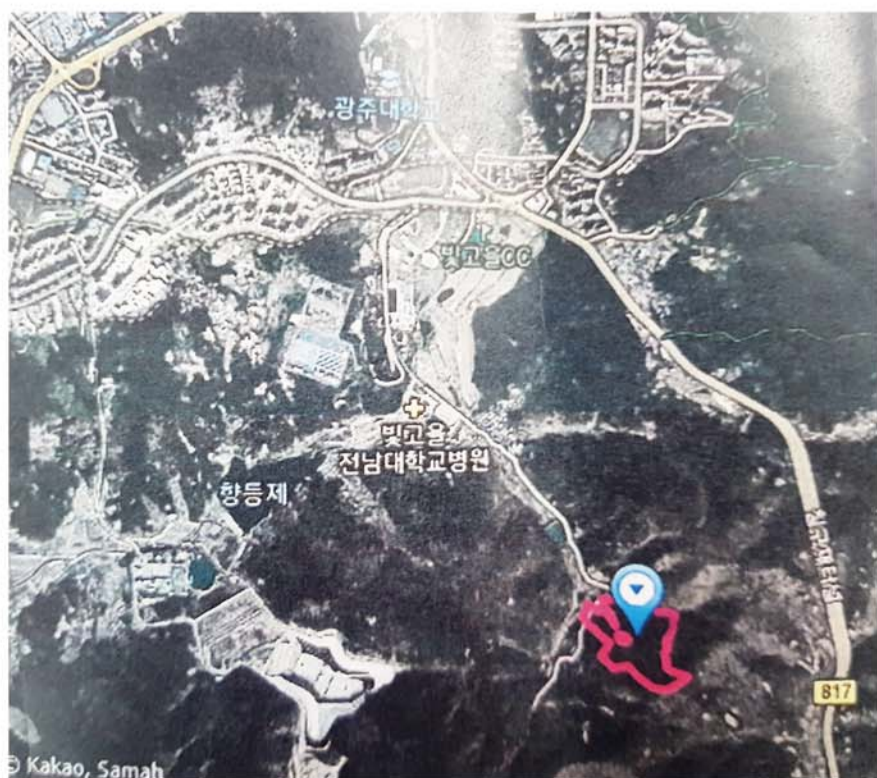
○...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32)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5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모 아파트 1층 입구 공동 건조대에 있던 아파트 여성 주민의

팬티를 훔친 뒤 2층 여성화장실에서 팬티를 바지 위에 끼입던 중 주민에게 들켜는 바람에 도주했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5년 전에도 여성용 팬티를 한 차례 훔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에서 박씨는 "본능에 이끌려 팬티를 훔쳤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